

아직 공사 중

정주은 (인턴기자)

1. 흔한 진로 고민에서 시작된 ‘왜?’라는 질문

20살, 입시 전쟁을 치르고 대학교에 입성한 후 맞닥뜨린 첫 번째 이슈는 전공 선택이었다. 문화 콘텐츠 제작과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연 영상학과 언론 정보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연 영상 수업을 들어 보기도 전에, 학부 선배와 동기들이 밤을 새워가며 공연 준비에 몰두한 모습들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그때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밤을 샅 정도로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이면에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라는 의문이 깊어져 갔다. 1학년 1학기가 지나고, 우연히 한 아이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답을 찾게 되었다.

2. 약자를 돕겠다는 열정에서 시작된 전공 선택

21살 여름방학 때 했던 봉사활동에서, 한 초등학교 남자아이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차에 관심이 많아 차의 모델과 기능과 성능, 디자인을 줄줄이 설명해내던 그 아이는 무척 영특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부모님의 케어를 받을 수 없어 복지기관에 맡겨진 것과, 가정환경과 관련해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과 선생님으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들을 말해 주었다. 평소에 지각 한 번을 하지 않다가 어찌다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무척 혼을 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른 아이들은 처음 지각할 때 봐주셨는데 자기는 다른 대우를 받아 무척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 자신의 가정환경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찌지? 살다 보면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오해받을 일들도 생길 텐데 이 아이의 자세한 사정을 누가 다 이야기해주나? 누군가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대변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아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그 아이는, 내게 작지만 강한 불씨를 던져주는 것 같았다.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법’은 사람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법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정했다.

3. 세상을 향한 피켓 시위가 왕성해지다

공연 영상학에서 한국법으로 전공을 변경한 후, 최종 전공은 언론 정보학과 한국법이 되었다. 약자를 위한 스피커가 되고 싶었던 열정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발동되었고 사회를 향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났다. 내 마음속엔 수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자극적인 뉴스나 판례를 접하면 감정부터 요동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비판이 강했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일상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내가 속한 단체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것들에 대한 바로잡는 ‘운동’이 매우 왕성하게 일어났다. 옳다고 여기는 것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상한 고집이 있었다.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선택한 전공 공부는 이러한 최고집을 정당화하기에 좋은 도구들이 되고 말았다.

4. 피켓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상에서마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끊어냈던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무척 피곤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속 피켓 시위에 대해 제동이 걸리는 때가 왔으니, 이는 무척 아픈 경험이었다. ‘비판하지 마. 비판하면 너에게도 똑같은 비판이 온다’는 메시지가 나에게 끊임없이 박혔다. 사실, 나는 내가 그렇게 분노했던 그 옳은 것들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분명,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반한 피켓 시위였다.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심 이면에는,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약자를 향한 배려나 관심이 이 세상엔 없구나’라는 생각은 멀리 가기도 전에, 나와 가장 가까운 이 ‘몸뚱어리’에서부터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철저히 보기 시작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날 향한 손가락질이기도 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꺾어내고 있었던 그 피켓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았다.

5. 나와 싸움이 격렬해지다

세상과 싸우겠다고 덤벼왔지만 결국 모든 싸움의 본질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약자의 심정과 처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법을 선택한 의도는 좋았지만, 이는 감춰진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있었다. 약자를 돕겠다는 마음, 그 시작은 좋았지만 그 일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욕구가 더 강하게 내재돼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알고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빨랐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로는 사람을 위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속한 단체와 주위의 사람들부터 사랑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공부해서 자격을 갖추겠다고 결정했다. 피켓을 들기보다는 정당한 자격을 갖춰 정확하게 권리를 보호해주는 위치에 서자고 결심했다. 이러한 결심 이후, 1년 반 동안 무식하게 공부하여 대학 졸업을 하고, 로스쿨에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6. 일상을 살아내는 연습

그간 감정에 치중해 공부에 치중하지 않았던 것들을 청산하고, 불필요한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과 공부에 주어진 시간을 적극적으로 쏟았다. 그렇게 무작정 달려온 지 3년 2개월 정도가 흘렀다. 최근 체력적 한계를 느끼면서 20살 여름방학 때 가졌던 그 패기를 떠올리게 되었다.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약자의 목소리를 내겠다.” 지금은 차마 입으로는 이 말을 꺼내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의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내면의 이기심과 철저히 싸우려 투쟁한다. 이를 악물고 사람을 사랑하며 주어진 공부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치열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진정 내 권리처럼 여기며 그동안 쌓아온 법적 지식을 겸손하게 쓰는 하루를 보낼 거라 상상해본다. 아직은 공사 중이다.